자연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
강화 전등사 수목장
대한불교 조계종 전등사 032. 937. 0125

현대불교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0년 (서기 2006년) 11월 1일(음력 9월 11일) 수요일 (주간) 제 601 호

신상품 LED인등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선거에 멍든 종단… 처방 시급

조계종 14대 종회의원 선거, 곳곳에 '상처'
"관련법 개정 · 청정 승가 구현 나서자" 여론

조계종의 입법과 대의기구인 제14대 중앙종회의원 81명 가운데 76명이 10월 26일 모두 확정됐다.

조계종 중앙선관위(위원장 도공)는 10월 26일 오후 1~4시 각 교구별로 직선의원 선거를 진행해 총 46명(직할 4명, 해인사 3명, 그 외 22개 교구 2명씩)을 선출했다.

이로써 23일 선출된 직능직대표 20명과 비구니대표 10명을 포함해 앞으로 4년간 제14대 중앙종회를 이끌어갈 76명이 모두 가려진 것이다.

그러나 선거가 무산된 불국사와 재선거가 결정된 관음사, 그리고 후보자가 1명이었던 금산사는 선거법에 따라 50일이내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한다.

선거는 끝났지만 선과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과 갈수록 깊어가는 '선거 후유증'은 불교계 안팎에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크게 부각된 문제점은, 원칙 없이 흔들린 중앙선관위의 파행적 운영과 직능직 종회의원 선출과정에서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나눠먹기식' 구태다. 초반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이 두 가지 사안에 가려, 선거 때마다 늘 제기돼 오던 △비리관련 부적격 후보의 출마 △투표자 매수와 금권선거 △종책과 소신보다는 문중과 계파를 배경으로 무작정 출마하는 문제는 지적할 겨를조차 없었다.

조계종 제14대 중앙종회의원 선거가 끝난뒤 선거법의 개정을 통한 선거 후유증 줄이기에 종단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10월 26일 직할교구의 투표소 장면. 사진=박재완 기자

'중심' 못잡은 선관위

중앙선관위(위원장 도공)에 대한 비판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다. 불국사 은해사 해인사 관음사 등에서 출마자격시비 등이 잇따랐는데도 선관위는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특히 11교구 불국사로 출마한 종문 스님의 출마입후보 자격 인정과 관련해서는 '인정'과 '불인정'을 반복하는 판결로 출 · 재가 단체들의 집중적인 성토 대상이 됐다. 결국 관련단체들의 눈치를 보다가 막판에 후보자와 선거인단을 확정하지 않고 선거를 무산시키는 편법을 동원하는 추태를 보였다. 한 중진스님은 "선관위원은 누구보다 사적인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워야 하는데, 특정인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종헌종법의 정신을 가볍게 여기면서 비난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종헌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종도들에게 웃음거리로 전락하게 된 배경에는 중앙선관위의 운영과 구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정원 9명 가운데 임기만료와 사퇴로 공석이 3명이나 발생했지만 171차 중앙종회에서 후임을 추천하지 않은채 선거를 진행했다. 때문에 3~4명만으로도 얼마든지 야합이 가능한 구조적 취약성을 노출했다.

따라서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위원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그 직을 수행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선거관련 업무를 종회사무처가 병행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독립기구화시켜 엄정한 선거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과제도 더 미룰 수 없다.

'나눠먹기' 이제 그만!

그동안 형식적인 계파별 '나눠먹기식' 안배에 침묵했던 선원과 강원, 비구니스님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선원과 강원의 경우 전국선원수좌회(공동대표 혜국 현산)와 전국강원교직자회(회장 우진)가 독자적으로 2명씩 후보를 추천하면서 선출위원회를 압박했다. 비구니 대표도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수현) 직선으로 종회의원이 추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셌지만 기존의 관행을 극복하지는 못했다.

결국 직능대표선출위원회는 '관행대로' 계파에 따라 20석을 나누었고 선원수좌회, 교직자회, 교단자정센터 등 단체들은 거세게 반발, 선출무효를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선출위원들이 "직능대표가 전문성에 맞게 안배되어야 한다"며 문제제기를 했지만 그들 역시 관행을 따라 후보 추천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결국 종도들의 반발을 의식해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10월 24일 긴급담화문을 통해 "직능대표 선출에 있어 입법취지를 벗어난 것은 잘못"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차기 종회가 구성되는 대로 시급히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중앙종회에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총무원이 직접 발의하겠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선출위원으로 참석했던 한 스님은 "현실적 필요성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의석수를 줄이더라도 직능직 선출은 정상적으로 하고, 전국구 개념의 간선의원 제도 도입을 고려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일부 교구서 불협화음 노출

이번 선거에서는 9개 교구가 투표없이 선거를 치렀다. 이러한 결과가 본사대중들의 합의를 통해 여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후보자 수를 강제로 조정하려들면서 교구내 알력과 불협화음만 부채질했다는 지적이다.

합법적으로 입후보한 종문 스님을 불국사 교구선관위가 고의로 누락시켰는가 하면, 관음사 교구선관위는 법정 · 혜민 스님의 입후보를 방해해 재선거 결정이 내려졌다.

금산사 경우에는 4명이 출마했지만 평상 · 원혜 스님의 사퇴와 성우스님의 후보자격 상실로 종회사무처장 법진 스님만 무투표 당선됐다.

승가적 선출 방식 모색해야

14대 종회는 지난 13대 종회가 처리하지 못한 각종 '선거법의 전면적인 개정'에 최우선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백양사 유나 지선 스님은 "선거가 종단을 망친다는 탄식이 제방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며 "승가의 전통적 방식으로 선출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4대 중앙종회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개악된 종무원법의 재개정도 미뤄서는 안된다. 대사회적 불교의 위상을 재고하는 것만큼이나 승단의 부정부패를 막고 청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종단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종도들은 계파와 문중의 이익을 위해 다투기 보다는 건전한 종책 대결로 경쟁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14대 중앙종회가 '선거법'을 둘러싼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2 · 15면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새 종회의원 프로필 5면

시방세계 9면
조계사 정오음악회 '칠일칠음'

산문밖의 禪
각자장 김각한씨 17면
경주 사천왕사지 발굴현장 13면
금장사 '방과후 공부방'
성공 노하우는? 19면
봉선사 강설대법회
지안 스님 '열반경' 24~25면

빛고을불교아카데미중계 4면 | 11월 1일 오후 7시 지광 스님 '유성출가상'

'위로부터 信바람' 시동

'부산불교지도자포럼' 창립 … 설동근 교육감 회장

부산의 학계, 교육계, 재계, 관계, 문화계의 지도층 불자 108인으로 구성된 부산불교지도자포럼이 10월 30일 코모도호텔에서 창립됐다.

기존의 신행단체와는 차별화된 포럼 형식으로 운영될 부산불교지도자포럼에는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인, 공무원 중에서 외부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고 있다. 창립법회에서 설동근 부산시교육감(사진)이 회장으로 추대됐으며 이시영 한중문화교류재단 이사장, 이윤희 부산대학교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7인이 부회장으로, 김재진 경동건설 회장, 안영욱 부산지방 검찰청 검사장, 강희락 부산지방경찰청장 등 6인은 고문으로 추대됐다. 이 밖에도 각 사찰 신도회장단, 신행단체장 등 부산불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부산불교지도자포럼은 신심 깊은 불자지만 외부적인 활동에 거의 참여하지 않던 이들을 묶어냄으로써, 대사회적으로 불교계의 위상과 결집력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향후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 중이며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앞장서 사회 각 분야에서 불교 활동의 기틀을 다지는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연 2회 세미나도 개최한다. 또한 학술문화 교류, 불교지도자 육성, 국제 교류, 사회복지 및 봉사사업 지원 육성 등 부산은 물론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한 연구 활동 및 지원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제12회 신행수기 공모에 동참하세요

원고지 30매…12월 16일 마감

불자들을 실천수행의 장으로 이끌어 온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지 4장)
- 접수처 :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마감 : 2006년 12월 16일 ■ 당선작 발표 : 2007년 1월 1일자 본지 및 붓다뉴스
- 문의전화 : (02)2004-8241 ■ 이메일 접수 : bypark@buddhapia.com
- 시상 부문
  - 대상(유마상) · 우수상(본지 사장상)
  - 특별상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상, 태고종 총무원장상, 천태종 총무원장상, 관음종 총무원장상, 총화종 총무원장상,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상, 신수회장상

※각 부문 당선작에는 상장과 부상-행운의 금(최고 10돈) 열쇠를 드립니다.

'경전수행을 통한 깨달음' 10대 강백 초청
봉선사 강설대법회

백운스님
법화경/11월 4일
봉선사 설법전, 031)527-1951~3

보이차 紅茶園
진년보이차 · 진품자사호 직수입
02-744-3311
www.hongdawon.com

아름다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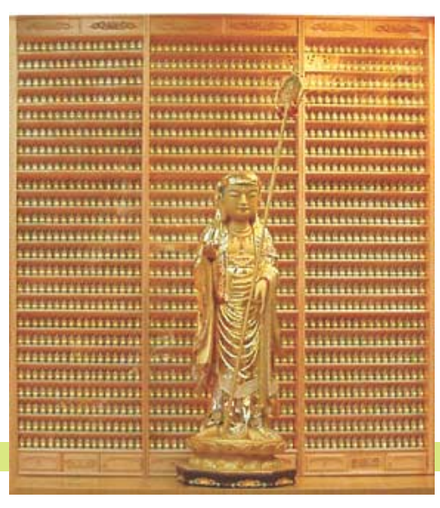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종등 팔각봉축접등 공단등 주름등(만월봉축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 상 품
영구위패
LED 인등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법당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